



미국채 입찰 결과에 직전과 상반된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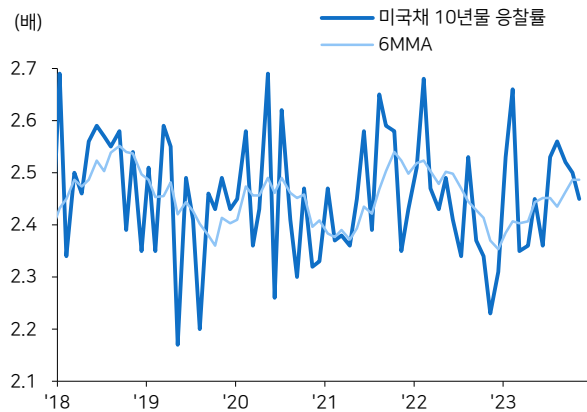
전일 400억 달러 규모 미국채 10년물 입찰 진행. 응찰률은 2.45배로 직전 6개월 평균(2.49배)을 하회. 직전 10월 응찰률이 2.50배였던 것과 비교해도 응찰률은 소폭 하락함. 그런데 결과만 놓고 보면 시장은 양호하다는 평가. 이번 입찰 결과에 반응한 미국채 10년 금리는 오히려 안정

직전과 비교해보면 10월 입찰에서는 당일 금리가 전일대비 하락 마감하기는 했지만 입찰 결과에 대해서는 금리가 상승하는 반응을 보였음. 10월 입찰에서는 응찰률 결과가 직전 6개월 평균(2.49배)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에 그쳤고, 8, 9월 대비 응찰률이 하락했기 때문

11월 1일 미국 4분기 재무부 채권 발행계획 발표 이후 금리의 수급 민감도가 안정된 것으로 해석. 8월 초 3분기 발행계획 발표 이후 수급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주식시장도 미국 장기채 입찰 결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등 민감도가 높았음. 그런데 11월 채권발행 계획에서 장기채 수급 우려를 덜어낸 이후 채권 입찰에 대한 금리 방향도 달라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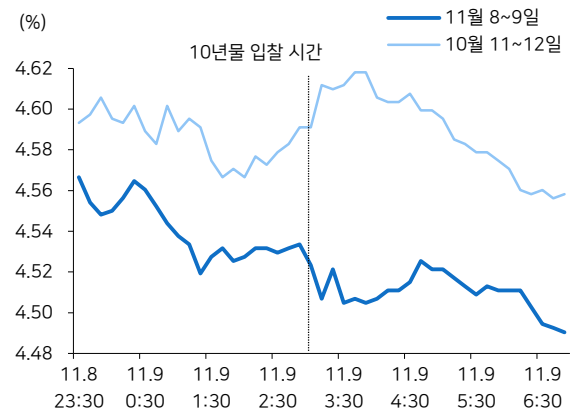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일 4.50%를 하회하며 마감. 8월 이후 주식시장이 금리 민감도를 높이며 조정되었던 만큼, 최근 금리 안정이 S&P500의 8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지지해주는 모습

그림1 미국채 10년물 응찰률



자료: US Treasury,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미국채 10년물 입찰 결과 반응: 10월 vs 11월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